

기록과 역사

-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

전 명 혁*

“아키비스트, 그는 세월과 함께 곱광이 낀 기록에 진실의 햇불을 밝히고, 고대의 명부에 쓰여진 황금빛 문자들과 같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과거를 환히 밝히는 존재이다.” - W.R. 와일드 부인 -

1. 머리말 :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에서 아카이브즈(archives)로
2. 아키비스트와 역사가 : 기록보존과 가치평가, 선별의 문제
3.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4. 역사에서 사실과 이론의 관계
5. 맺음말

주제어 : 기록(records), 아카이브즈(영구보존기록 / archives), 사료(historical materials), 사실(facts), 역사가, 아키비스트

1. 머리말 :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록에서 아카이브즈로

역사학도로서 기록학에 입문하고 기록관리업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머리 속에 여전히 혼란스럽게 떠도는 문제는 기록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책임연구원

사료 그리고 역사서술에서 그들이 갖는 의미와 관계 그리고 인식에 대한 문제였다. 과연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나의 혼란을 정리해보고 본래적·태생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기록과 역사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문자를 만들어 자신의 삶과 의식, 행위에 대한 기억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문자 이전 인간은 구술전통(口傳, oral tradition) 즉 수 세대를 거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집단과 사회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쓰기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들은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술로는 결코 불가능한 분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쓰기는 정보의 저장, 전달, 활용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말하기를 압도하였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대체하였다.¹⁾

이와같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는 구술성과 또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고 있지 않는 쓰기라는 기술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쓰기는 자기 자신의 감각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한층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복돋는다. 쓰기는 의식을 끌어올리고 재구조화한다.²⁾

쓰여진 기록으로 재구성된 역사는 기억의 대표자 또는 보증인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에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하였다. 개인적 기억들과 회상들의 다수성을 대면하여 역사가는 자신을 기억의 전문가, 유일한 조정자로서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역사적 기억은 단성적(univocal)이고 단일적(unitary)이

1) James M. O'Tool, 이승억 역 『기록의 이해』, 진리탐구, 2004, 22쪽.

2)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265~266쪽.

고 통일적(unifying)이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다양한 상황과 관점들을 집합적 과거로 통일되도록 만든다.³⁾

설령 역사가들이 다른 종류의 역사 쓰기를 원했을 지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문자로 기록된 역사에서 원재료(raw material)인 문서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거나 폐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보다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며, 비공식적인 문서일수록 살아남기 어려웠다. 큰 권력구조는 자신의 이미지 안에서 과거를 형태 짓는 거대한 기록 기계로 작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기록관의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출생과 결혼 등록소(registers), 구빈(poor relief)과 복지에 관한 의회와 정부의 회의록, 중앙과 지역 신문, 교사 일지와 같은 온갖 종류의 기록들은 많았다. 또한 교회 기록관(archives)과 거래장부, 그리고 큰 사기업과 토지계급으로부터 나온 다른 책들, 심지어 지주와 같은 지배계급이 서로 교환한 서신도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무수히 많은 노동계급과 여성의 (오래된) 우편엽서, 편지, 일기, 혹은 구멍가게와 같은 소규모 장사나 농부들이 쓰는 서류들 등은 그 어디에서도 거의 보존되지 않았다.⁴⁾

그러나 오늘날 역사의 흐름은 역사의 침묵 밑에 있는 기억들을 끊임없이 부활시키고 있다. 구술사의 목적 중의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대항 역사를 상술하여 ‘피정복민’의 - 종족적 또는 문화적 소수 집단, 여성 또는 노동자 - 판본(version)을 재구성해내는 것⁵⁾이라면, 이제 그 역할은 “집단의 경험 속에서 과거로 남아있는 것 혹은 집단이 과거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체와 개인의 기억 즉 집합적 기억을 유지하는 보존된 기록의

3) 나당 바슈텔, 윤택림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 서론」, 『역사연구』9호, 2001.6, 263쪽.

4)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4.

5) 나당 바슈텔, 위의 글, 248쪽.

집합체가 ‘집합적 기억’인 것이다.⁶⁾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류공동 기억의 집합 공간이 기록관(Archives)인 것이다.

ICA(국제기록보존협의회)에 따르면 기록(record)은 “법적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단체, 조직, 개인에 의해 작성되어 입수되고 유지된 서류[정보]”⁷⁾를 말하고 아카이브즈(archives)는 “개인 또는 조직이 그 활동 가운데 작성 또는 수집하고 축적한 자료로 계속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된 것”⁸⁾을 의미한다. 물론 기록물과 아카이브즈 모두 기록매체(종이, 테이프, 디스크 등)나 형태에 관계없이 기록된 모든 정보가 포괄된다.

일본의 전국역사자료보존이용기관연락협의회(전사료협)에서 발행되는 『기록과 사료』에서는 “ ‘기록(record)’이란 옛 목간(木簡), 고문서, 금석문, 그림도면에서 현재 공문서와 사문서, 마이크로필름, 녹음테이프, 광디스크까지 시대와 형태를 불문하고 대체로 인간이 기록해온 온갖 정보를 지칭하고 있고 “ ‘사료(archives)’란 기록(record)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사료로서 영구히 보존된 것 혹은 보존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정확히는 ‘기록사료’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⁹⁾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사료관 교수인 스즈에 에이이찌(鈴江英一)는 다음과 같이 ‘사료’ 즉 아카이브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6) 青山英幸, 「コンピュータ社会における集合的記憶」,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編 『アーカイブズの科學』上, 柏書房, 2003, 153쪽.
- 7) ICA,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3rd ed.*, 2003 (全國歷史資料保存利用機關聯絡協議會 監修, 『文書館用語集』, 大阪大學出版會, 2003, 28쪽.)
- 8) 全史料協 監수, 위의 책, 65쪽.
- 9) 鈴江英一, 『近現代史料の管理と史料認識』,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2002, 25쪽. 일본에서는 ‘사료(史料)’ 또는 ‘기록사료(記録史料)’를 아카이브즈(archives)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자료로 사용되는 사료와는 구별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아카이브즈를 ‘영구보존기록물’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료(史料)’는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체 및 개인이 그 활동 과정에서 생성 - 즉 작성, 접수 또는 기술, 편철 - 한 문서·기록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조직체·개인의 상태, 생성의 형태, 작성·전달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문서·기록은 어떤 특정의 요청, 가치 인식을 지니고 지역, 나라, 정치형태, 조직체의 성격 또는 시대에 따라 규정되어 다양하게 생성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문서·기록을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려는 행위 자체 또한 훌륭한 역사적, 사회적 소산이라 할 것이다.

근현대 특히 현대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 문서·기록이 대부분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비야흐로 넘치고 있다. 이 사실은 현대 사회 또는 시대에서 특유의 소산에 다름아니다. 다른 한편 문서·기록은 이를 생성한 당사자에 의해 당면 생성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관리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본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의의를 가지고 이용되고 보존가치를 생성하고 있다. 보존된 문서·기록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가치가 다중으로 누적되어 그 조직체·개인의 모든 일들을 시간 속에서 설명할 소재로 되고 있다. 이 성질 때문에 보존된 문서·기록을 ‘사료’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아카이브즈(archives)의 역어이다.

‘사료’는 본래 누적됨으로서 시간을 넘어 사물과 현상을 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착목하여 역사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사료라는 술어는 원래가 역사학의 것으로 역사학은 문서·기록 기타 보존되어온 연구의 소재를 ‘사료’로 부르고 또한 이들을 보존할 대상으로서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아카이브즈로서 사료는 역사학의 연구소재인 사료와 동일한 것으로는 말하지 않게 되었다.¹⁰⁾

10) 鈴江英一, 위의 책, 1~2쪽.

스즈에 교수의 설명은 일본에서 사료는 첫째, 아카이브즈의 번역어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기록과 둘째, 역사학의 연구소재로서 사료의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와같이 인간의 의식과 행위의 산물로서 기록과 그 기록이 어떻게 영구보존기록(archives)으로 되고, 그 가운데 어떤 기록이 사료로 되는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아키비스트와 역사가 : 기록보존과 가치평가, 선별의 문제

최근 과거사 특히 한국 근현대역사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진실규명을 위해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살시키지 않고 계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일제하 강제 연행된 조선인에 대한 기록에 관해서 일본 노동성은 한국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보존은 커녕 오히려 의도적 폐기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역사적 기록을 보존해야하는 공동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

기록관(아카이브즈)은 기록유산을 기록(record)과 영구보존기록(archives)으로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전문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록유산은 '사건'과 '행위'에서 뿐만아니라 '자연'과 '사물'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자연유산과 사물유산을 물체로서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보존의 형태로 남겨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도구와 예술작품을 제작하거나 보존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에 연관된 기

록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도 물론 기록유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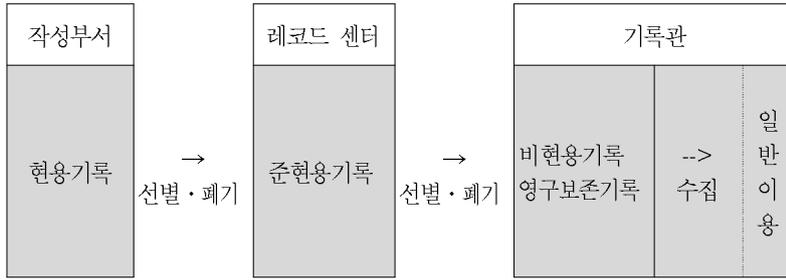
그런데 기록관이 박물관, 도서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의 종류의 차이보다도 오히려 모기관의 조직내 기록을 지속적으로 입수한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에 있다.

조직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은 <그림1>에서 처럼 현용기록 -> 준현용기록 -> 비현용기록(영구보존기록)이라는 3개의 단계를 취하게 된다. 레코드 센터(중간기록보존소)와 기록관 시설을 정비하고 현용기록에서 비현용기록까지 일관된 기록관리시스템을 확립한 조직에서는 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기록이 유통되고 영구보존기록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조직체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자원으로서 확실히 선별되어 보존되는 것이다.¹¹⁾

이와같은 영구보존기록물은 첫째로 형성의 시기나 장소, 개인 또는 조직체를 불문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어 영속적으로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둘째, 문자, 영상, 음성, 전자기록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셋째, 원칙적으로 인간활동의 1차적 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기록으로 대량 복제물의 형태로 유포되는 도서, 신문, 음악CD, 판매되는 비디오 등의 저작물은 원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영구보존기록물은 보통 '기록군'(record group)으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는 모기관의 기구와 기능을 반영한 체계적 질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의 정리는 기록군의 구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런 점에서 도서관의 자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1) 小川千代子・高橋實・大西愛 編, 『アーカイブ事典』, 大阪大學出版會, 2003, 18쪽.

<그림1> 조직내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아카이브즈 활동



기록(record)과 영구보존기록(archives)의 두 구분은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개념지워진 것이지만 이것은 보존의의의 전환이라는 시점에서 구분된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구보존기록의 선별과 결정은 아키비스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 가운데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의 성격과 정보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현대의 아키비스트는 역사가가 역사서술을 위해 수많은 자료 가운데 역사적 자료, 즉 사료를 선택하듯이 수많은 기록 가운데 영구보존 기록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기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관의 역할을 함으로서 후대에 역사서술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기록물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즈 선별은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역사가는 아키비스트에 의해 선별되고 영구보존하기로 결정된 기록을 기본적인 역사자료로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한다. 무엇보다도 현대사 연구는 엄청난 기록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는 직접 기록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아키비스트에 의존하여 아키비스트가 평가·선별한 영구보존기록물 중에서 역사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직접 역사서술을 하지 않지만 역사서술의 바탕이 되는 영구보존기록(archives)을 남김으로서 사실상 역사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에게 역사의식과 역사연구의 동향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에서 아키비스트들에게 업무의 일정 시간을 역사연구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와 역사가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독일의 아키비스트 한스 뵘스(Hans Booms)는 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기록, 즉 아키비스트나 역사가의 편견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기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회와 그 사회에 대한 공공의 견해(public opinion)만이 아카이브즈 선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뵘스는 모든 아카이브즈 선별방식을 위한 토대로서 과거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 ‘당대인’들이 부여한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과거 현상의 사회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창안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회의 기록유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행정학, 과학, 미디어, 경제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아키비스트 상호간 혹은 학제간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평가이론은 미국에서 ‘다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즉 선별은 어떤 기록물을 보존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기능과 활동을 다큐멘테이션할 것인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록물을 선별할

12) 이상민, 「역사를 위하여 :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 공공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제6호, 2002.10, 230~231쪽.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역사기록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요구하였다.¹³⁾

3. 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그러면 아키비스트에 의해 선별된 영구보존기록물이 어떻게 역사적 자료인 사료(historical material)가 되어 역사서술 즉 역사를 구성하게 되는지 하는 문제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필자는 2002년 여름 김사국(金思國 : 1892~1926년)이란 일제하 사회주의자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집한 적이 있다. 그는 3·1운동 당시 한성정부를 옹립하는 ‘국민대회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1920년 9월 만기 석방되어 1921년 1월 서울청년회와 고려공산동맹 등을 조직하는 등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던 인물이었다.¹⁴⁾ 이후 정부는 김사국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필자가 김사국이란 인물을 연구하는데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문제는 그의 家系와 출생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찾아보아도 그의 부친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인물연구에서 가계에 대한 추적은 기본적인데 글을 쓰는 처음부터 자료의 문제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고심하다가 박사논문을 집필할 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사료집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9: 三一運動 4』(1994년) 에 수록

13) F. Gerald Ham,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32~33쪽.

14) 全明赫, 「解光 金思國의 삶과 민족해방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제23집, 2002년 겨울호.

된 경성지방법원의 「三·一獨立示威關聯者公判始末書」(1919년)에 김사국의 본적이 '종로구 통의동 28번지'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종로구청을 방문하였다. 필자는 종로구청 호적담당자에게 김사국이라는 사람의 호적을 신청하였다.

구청 호적계 공무원은 김사국이란 사람의 호적신청의 이유를 물었고, 필자는 그가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이고 역사연구를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한권의 두툼한 책자를 주면서 통의동 28번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그 책자는 종로구의 여러 동(洞)의 주소지의 호주에 대한 변천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통의동 28번지의 호주 가운데 김사국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여 알려주자 그는 서고에 들어가서 5분쯤 뒤에 나오더니 매우 사무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내밀었다. 金思國의 戶籍簿였다. 나는 60원의 수수료를 주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기록은 나에게 60원의 화폐가치의 수백배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기록이었다. “1947년 12월 화재로 불타 1962년 12월 본 호적을 再製하였다”는 담당자의 날인이 찍혀있는 2장의 호적부에는 그의 가계와 출생의 의문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김사국 호적부로부터 그가 延安 김씨인 부친 金慶秀와 順興 안씨 安大成의 장녀인 모친 安國堂의 장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사국(金思國)과 그의 동지이며 동생 김사민(金思民)이 이름부터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는 범상치 않은 이름이어서 그동안 가명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가 연안 김씨임을 확인하면서 나는 『延安金氏族譜』(延安金氏族譜所, 1913)를 국회도서관에서 열람하여 그의 이름이 연안 김씨 세보의 항렬에 따른 평범한 이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김씨족보에 따르면 ‘淵-秀-思-基 또는 燮’으로 되어 있어 부친 이름

의 秀와 그와 동생의 思는 분명 전형적인 항렬에 따른 이름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나는 현용기록이면서 영구보존기록인 호적부가 역사연구자의 발굴을 통해 역사자료인 사료로 선택됨으로써 역사서술로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역사가는 역사연구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에 후대의 연구자들이 사용할 사료를 결정한다. 즉 현재의 역사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방식을 규정할 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연구 - 그 방향과 사료-를 규정한다. 그것은 현재의 역사 연구의 추세와 맥락에서 미래의 사료가 선별 보존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기존 기록의 연구만으로도 역사연구는 가능하다. 만약 생존하고 있는 기록이 불충분하고 미비하다면 그 역사 역시 빈곤하고 부실한 역사가 될 수 밖에 없다.¹⁵⁾

사전적 의미로 사료는 “과거를 알기 위한 소재가 되는 것. 사료가 없는 곳에 역사는 없다고 하며, 과거를 직접 감지할 수도 없다. 사료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과거에 접근할 수 있다.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가 남긴 여러 가지 흔적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은 사상(事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란 과거를 알기 위한 흔적이므로 사료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한정할 수는 없다. 인간이 쓴 것, 말한 것, 즉 문헌사료는 사료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¹⁶⁾라고 정의되고 있다.

역사가가 수많은 기록과 사건 중에서 선택하여 역사서술의 자료로 사용된 것은 이제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그 많은

15) 이상민, 앞의 글, 231쪽.

16) <http://100.daum.net/DIC/detail?id=1443150&sname=사료>

기록과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로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역사의 사실이 되었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과거가 역사적 사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사소한 사실에 대한 기록도 역사적 사실로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와 보증인이 필요하다. 바로 다른 역사가들이 그것을 타당하고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것의 지위는 해석의 문제에 좌우된다. 이 해석이라는 요소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개입한다.¹⁷⁾

이러한 점에서 역사는 중립적이고 불가피한 기술적 변화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이 역사가 스스로가 지니는 가치나 태도들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오히려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¹⁸⁾

4. 역사에서 사실과 이론의 관계

‘아키비스트 윤리강령’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아카비스트는 기록의 완결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역사가는 기록에 근거하여 그의 신념과 역사관을 방법론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가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은 실제로

17) E.H.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22~24쪽 참조.

18) 김경일, 『E.P. 톰슨의 사회사와 계급이론』,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10집, 1988, 137~138쪽.

어떠했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실증주의자, 경험주의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좌판 위에 놓여있는 생선처럼 사실들을 집어 들고 자기 식성에 맞게 요리하여 내놓는 수동적, 전(前)의식적 과정, 이것이 역사인가? 이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역사과정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시대에 뒤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란 무엇인가? 지나간 모든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과 역사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놓여있음을 말한다. 수많은 사실 가운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역사가에게 선택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될 수 있었던 인식과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의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신의 역사가를 가지지 못한 사실은 죽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다. 역사가는 자신의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만들어내고 또한 자신의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역사가는 그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된 무수한 특징들을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과거를 아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가 의존할 수 있는 자원이다. 양계적인 불편부당함(impartiality)의 이상은 하나의 꿈이자 기만이다. 역사가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활용하여야 한다.²⁰⁾

19) E.H.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1997, 50쪽.

20) 엘릭스 켈리니코스, 박형신·박선권 옮김, 『이론과 서사 - 역사철학에 대한 성찰 -』, 일신사, 2000, 154쪽.

현재의 지평은 계속해서 형성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검증해야 한다. 이같은 검증에서 중요한 것이 과거와 마주하여 우리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평은 과거 없이 형성될 수 없다. 고립된 역사적 지평들이 존재하지 않듯이, 현재의 고립된 지평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란 오히려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그러한 지평들의 끊임없는 융합이다.²¹⁾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H. G. Gadamer)가 말하였듯이 역사이해는 주관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융합되고 있는 전통의 과정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과학적 진리란 비합리적 행위를 배척하고 합리적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일으키는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법칙과 필연성이란 것은 역사주체로 될 역사연구자의 통찰력을 통하여 종종 우연이라는 현상형태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연성의 필연성으로의 내면적인 연관 속에서만 과거에 관한 지식을 역사상으로서 선택하는 가치판단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가는 것이다.

역사학은 과거에서 우연적인 사건과 사실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연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법칙을 추출하는 것이다. 역사학의 임무는 사회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회구조의 기본법칙을 장소의 논리로서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과정의 논리로서도 유용한 그 양자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체와 그 전개에 실상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곳에는 유효한 방법으로서 역사의 발전단계를 구조론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²²⁾

21) H.G. Gadamer, *Truth and Method*, London, 1975, p.273 (엘릭스 켈리니코스, 위의 책, 147쪽).

그러므로 역사학에서 법칙이 추구하는 것을 세계사의 기본법칙으로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해하고 더불어 법칙성의 정립을 자기 목적화하는 경향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 발전단계의 구조론적 파악은 오히려 역사발전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되었다. 그 때문에 구조론적 파악의 자기목적화를 부인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단지 사료만을 따라간다면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상은 그려지지 않는다.²³⁾ 이러한 역사 연구 방향의 실종은 과거에 대한 맹목적 열광과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는 아날학파의 담론이 되어버렸다.

실증주의사학이란 것도 그 전체에 일정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구성되어있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역사상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료의 선택마저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객관적으로 법칙성을 정립하는 것 마저 배제하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법칙성을 정립하여 서술한 역사상에는 인간이 그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이 취하는 법칙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관을 초월하여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역사학을 배제하고 과거에서 인간 존재의 객관적 존재방식에서 미래로의 전망을 역사를 통해 구성하고 현실을 전환시키는 방향을 관통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역사학은 인간존재에 깊게 관계되어있는 학문이다. 역사학에서 예견성이 있는 역사상이란 것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는 역사를 ‘시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과학’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역사가는 인간을 추상 속에서 생각하

22) 津田秀夫, 『史料保存と歴史學』, 三省堂, 1992, 12쪽.

23) 津田秀夫, 위의 책, 13~14쪽.

24) 인간이 빠져있는 구조주의적 역사서술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소화사논쟁’이 일어났다.

지 않는다. 역사가의 사상은 자유롭게 시대의 분위기라는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옳다면 역사연구는 인간들이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같은 맥락들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며 맥락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필요로 한다. 즉 역사는 사회이론을 필요로 한다. 이론은 단지 특정 사건들만 선택하여 이론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건들에 구조를 부과한다. 역사는 사회이론에 의존하지만 사회이론 또한 그만큼 역사에 의존한다.²⁵⁾

5. 맺음말

앞에서 나는 기록과 역사의 관계, 즉 기록이 영구보존기록으로, 사료로 선별·선택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과 그 차별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서술에서 사실과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록학은 사회성을 띤 영구보존기록(archives)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과 그 기록이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완결성(integrity)을 보호하는 것을 아키비스트의 기본적인 기능임을 주장한다. 기록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한 원천과 기초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증거(testimony)를 전달하는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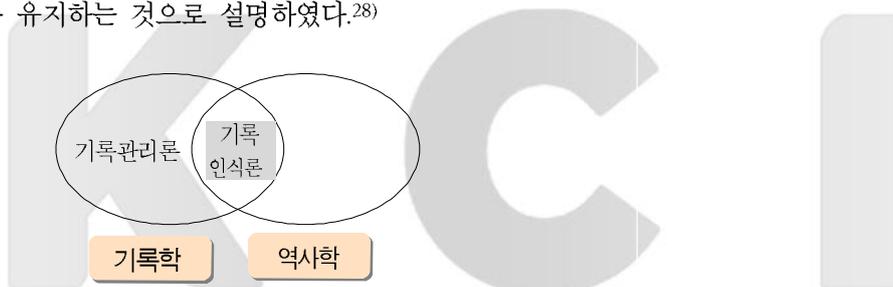
한편 역사학은 역사의 내적 의미 속에는 진실을 탐색하고 현존하는

25) 엘릭스 켈리니코스, 앞의 책, 155~161쪽 참조.

26) LUCIANA DURANTI,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Vol.57, Spring 1994, p.343.

사물들의 원인과 기원을 치밀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사건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심원한 지식을 성찰하고 그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역사는 철학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다. 과거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영원한 차원 속에 존재하며, 인간 사회의 제도, 가치, 그리고 그 밖의 패턴의 불가피한 구성요소이다. 역사가의 과제는 ‘과거의 의미’의 본질을 사회 속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와 이행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²⁷⁾

일본의 안도 교수는 “기록학이란 기록을 역사연구를 비롯한 인간의 여러 가지 창조적 문화적 활동의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를 지향하는 학문분야”로서 이를 ‘기록인식론’과 ‘기록관리론’의 두개의 연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록인식론이란 기록으로 되는 소재의 속성과 존재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그것에 의해 기록으로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록관리론이란 기록으로 되는 소재 그 자체를 수집 혹은 보존하고 기록으로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리하고 영속적인 보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²⁸⁾



<그림2> 아키비스트 연구영역과 역사연구자의 연구영역²⁹⁾

27) 에릭 홉스봄, 강성호 옮김, 『역사론』, 민음사, 2002, 31쪽.

28) 安藤正人, 『記録史料學と現代 -アーカイブズの科學をめざして』, 吉川弘文館, 1998, 20쪽.

29) 安藤正人, 위의 책, 41쪽.

위 <그림2>와 같이 기록학과 역사학 그리고 아키비스트와 역사연구자는 현대의 기억과 인류 공동의 기억을 미래로 전승하기 위해 각자의 연구영역 뿐 아니라 기록학은 역사학을 역사학은 기록학 영역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고, 각자의 연구영역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K C I

abstract

**Records and History - the Relations of Records, Historical
Material and Historical Theory in the Historical Narrative**

Jun, Myung-Hyuk

1. Introduction : From the Memorial to the Records, From the Records to the Archives
2. Archivists and Historians : the Records Keeping, Appraisal and Selection
3. Records an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Historical Narrative
4. the Relation of the Facts and Theory in the History
5. Conclusion

In this essay I considered the relations of records and history, namely the process on the selection and choice from the records to the archives and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in the process the role on the archivists and historians and difference and the relation of the facts and theory in the history.

Archival science posits that an archives is the whole of the documents made or received in the course of purposeful activity, and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documents. Archival theory posits that it i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archivists to maintain unbroken, continuing custody of societal archives, and to protect their integrity by keeping them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uncorrupted. The ultimate purpose of archival endeavors is to hand down to the next generations a reliable, trustworthy, and complete testimony of societal actions so that they can constitute sources of, and foundations for, future

decision making.

However, historical science searches for the truth in the historical facts, explains the cause and origin of the matters and reflects on the knowledge about the why and how the events happened. And history is firmly rooted on the philosophy. The goal of historian is analysing the nature of meaning of past in the society and tracing up the change and process of the transition.

Archival science means historical source studies and other related disciplines. On the other hand archival management i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original order and the importance of original forms and conditions. Thus the relations between archival science and archives management are not one-sided but mutual.

Archival science and historical studies, archivists and historians need to link more closely in order to hand down the contemporary memorial, the common memorial of mankind to the future.

